

제34호

발행일 : 서기 2016년 9월 5일(월)
창간일 : 서기 2000년 8월 25일
구독신청 : (02) 836-5631
FAX : (02) 833-9401
H.P : 010-4711-8127

安東金氏 翼元公派宗會報

발행인 : 김 석 한
편집인 : 김 영 수
발행처 : 안동김씨익원공파종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8길 8(대림동)
인쇄인 : 김 성 회
사무실 전화번호 : (02) 836-5631
사무국장 휴대전화 : 010-4711-8127

인사말씀



회장 김석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친여러분 그 무더운 삼복 폭염 속에 얼마나 고생들하셨습니까? 가내도 편안들하시고 종친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신지요 종친여러분 각 가정에 행운이 깃들어 행복한가정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6개월동안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를통해 새 입법부를 구성하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우리 안보에 대한 온국민들이 우려와 불안속에 몰아 넣었고 사드배치에 대한 혼란등 그리고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었던 올림픽에서의 우리나라가 당당 8위에 올랐다는 쾌거 이제는 우리의국력이 세계 10대 강국에 속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해준 것등 그러나 우리종인들께서는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흔들림없이 굳건히 생활에 정진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종회 사무국 직원 역시 종인들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대동보 편찬에있어서도 3개월이상 인터넷 족보 열람을 통해 많은 종인들이 참여하여 수백건의 수정 작업을하여 책족보의 마지막 발간 작품으로서 정확하고 올바른 족보를 편찬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족보대금도 대동보 135질 파보 1,630질을 구매신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족보발간이 늦어진데 대한 죄송함도 금할길 없습니다.

제가 3년간 회장직을수행하면서 지금까지는 내무를 중점적으로 꾸려나가 금년말에는 보상금을 포함 문영공 지원자금등 4억원이 넘는 자금이 조성되어 명년부터는 조상님을 모시는 선양사업을 내실있게 계획을 세워 선조님들의 유업을 발굴 찾아내어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학술발표회 연구논문 발표회를통한 문헌을 수집 발간하는 일을 추진하려고 구상하고있습니다. 3년간 별로 나타나게 한일도 없는데 종인여러분들의 연임 제창에 22대회장에이어 23대 회장직을 맡았으므로 종인여러분들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상님 섬기는 일과 우리 종친회가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심기 일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익원공 부조묘 향사에 원거리에서 참석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종인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한가위명절에는 온가족이 모여 화기애애한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종인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온가정에 행운이 깃들어 행복한 가정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5

안동김씨익원공파 종회 회장 김 석 한

先祖님의 行祀日

安東金氏 翼元公 派宗會 2016년

날 짜	장 소	연락처
음력 2월 14일	永慕堂 孝子 進士 金質(道巖書院) 儒林行祀 (익원공 7세손) 전북 고창 공음 칠암리 819-1(갑촌)	T.(063)564-7021
음력 2월 15일	部令公 金宗漢, 佐郎公 金貴德 時享 (익원공 둘째손자) 전북 고창 공음 장곡	T.(063)562-7085
양력 6월 26일	白凡 金九 先生 追悼式 (익원공 21세손) 護軍公 金宗浚 익원공 큰손자에서 18세손 서울 효창공원 묘소, 백범 기념관	T.(02)719-1311
음력 7월 29일	翼元公 金士衡 不桃廟 祠堂 道巖書院內 享祀 전북 고창 공음 칠암리 819-1(갑촌)	T.(063)564-7021
음력 10월 29일 (양 11월 4일)	典籤公 金宗潤, 監察公 金琛 時享 (익원공 셋째손자) 충북 괴산군 청안 초천리	T.010-7533-2170
음력 10월 5일 (양 11월 4일)	貞簡公 金永熙, 領司司公 金蔵, 按廉使公 金士廉 時享 충북 청원군 오창면 모정리 (익원공 할아버지, 아버지, 2째 형님)	T.(043)217-7517
음력 10월 6일 (양 11월 5일)	翼元公 金士衡 派祖 時享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T.(031)772-4821
음력 10월 7일 (양 11월 6일)	文英公 金恂 時享(익원공 증조 할아버지) 경기도 안양시 관양1동	T.(031)424-5292
음력 10월 9일 (양 11월 8일)	忠烈公 金方慶 中始祖 時享 (익원공 고조 할아버지)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동 능골	T.(054)855-2688
음력 10월 10일 (양 11월 9일)	同樞公 金宗淑 時享 (익원공 넷째 손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T.010-6282-1404
	文靖公 金璜 時享 (동추공 큰아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	T.010-289-7579
	孝昭公 金礎 時享 (동추공 둘째아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면 팔아리	T.010-6282-1404
	牧使公 金璜 時享 (동추공 셋째아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면 금산	T.010-2942-9052
	豐陽君 金礎 時享 (동추공 막내아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T.010-5055-0606

대동보 발간에대하여

먼저 족보 발간이 늦어진것에 대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족보 열람을 하시고 잘못된것을 바로 잡기위한 수정작업이 늦어져서 지연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가 끝나면 책족보가 완성되어 신청하신 분들에게 주소지로 배송이되는데 신청 당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변경되어 배송이 안될시 반품 처리 문제 보관 문제 재배송 문제등 혼란을 초래하게되오니 주소지가 변경된 종인께서는

전화나 메세지로 꼭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접수 대장에 주소지가 바로되어 있는지 전화로 확인하시는데 먼저 부여한 고유번호(예)문00번(영수)를 말씀하시면 여기서 대조하는데 수월하니 배송에 차질없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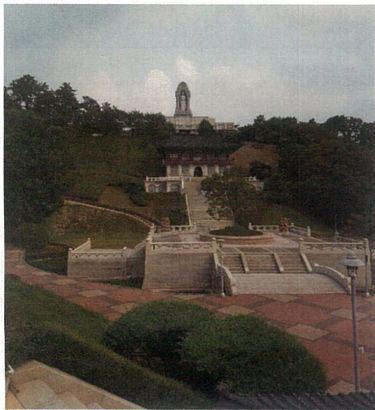
확인처 : 안동김씨익원공파 종회 사무실
전화번호 : 02) 836-5631 핸드폰 : 010-4711-8127

제609주기익원공 휘 사형

부조묘향사봉행

제609주기 不桃廟 享祀 香燭代 芳名

2016년 8월 31일



서기 2016년 8월 31일(수요일)을 7월29일 14:00 에 전북 고창군 공음면 갑촌길20 도암서원 부조묘 사당에서 전국 각지에서 안동김씨 대종회장 봉회 회장을 비롯하여 종인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영(의전담당 부회장) 집례에따라 엄숙하고 경건하게 향사가 봉행되었다. 초헌관에는 중회(고창 중손), 아헌관에는 태선(제학공 수도 권종회장), 종헌관에는 철호(서운관장과 중회 회장), 진설 수인(고창), 대축 성회(익원공파중회 부회장.부여), 찬인 영화(대구), 봉향·봉로 경회(고창), 사준 수은(고창), 봉작 수업(고창), 전작 태철

(수원), 직일 석한(익원공파 회장). 제례행사가 끝나고 간단하게 음복주를 한후 15:00 - 17:00까지 원불교 근원지 해안도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등을 관광한후 17:00 - 18:00 법성포에서 지역명물인 조기 정식으로 100여명이 석찬을 나누면서 종친간 친목을 돈독히하며 송조목족의 이념을 고취시켰다

「미담사레」

이날 익원공파 중회 김석한 회장은 석찬비용 관광버스1대 등을 개인 사비로 지불했으며 당진 신평양조장 용세(익원공파 중회 고문)께서 제주및음복주로 백련맑은술 1박스를 고창 수인, 광수,께서 지역특산품인 복분자술을 제공 귀가길에 차내에서 나누워 마시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가져 귀가길 발걸음이 가벼웠다

번호	성명	금 액	비 고	번호	성 명	금 액	비 고
1	김석환	2,200,000	익원공파중회장 (先.지출분)	19	김태문	100,000	안렴사 회장
2	김수백	200,000	고문, 좌랑공	20	김재만	50,000	대경공
3	김재원	100,000	이사, 부산	21	김관식	50,000	문정공
4	김성희	100,000	부회장.부여	22	김중원	100,000	고문.대구
5	대중회	100,000	대중회	23	김재호	50,000	문은공
6	수원참의공	200,000	문정공	24	김재훈	50,000	대경공
7	김태철	100,000	이사, 수원	25	김봉희	100,000	대종회장.봉회
8	고창.중회	100,000	고창 참의공	26	김용목	100,000	목사공 서울
9	김선희	200,000	명예회장 서울	27	김철호	100,000	효소공회장
10	문정공중회	100,000	문정공중회	28	김재남	100,000	부회장.효소공
11	김근식	100,000	문정공.중회장	29	김태길	100,000	함열공파 회장
12	대구.중회	100,000	대구지역중친회	30	김인회	100,000	주부공.회장
13	김태현	50,000	부산	31	김지묵	100,000	동추공회장
14	김재권	100,000	부산	32	김근식	100,000	이사.문정공
15	김준목	100,000	부산	33	김영수	100,000	익원공파 중회사무총장
16	김재진	50,000	부산	34	전첨공 중회	100,000	전첨공파중회
17	김재영	100,000	문정공	34	당진종친회	100,000	문정공
18	김진수	50,000	문정공				

충렬공 김방경 묘소 참배

우리 안동김씨의 집성촌은 충청남도 부여버드래이는 부여읍 송간 지석 등에 300호가 웅기웅기 모여 살아온지가 약 450년 전에 설촌되어 명문가문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금년 7월 27일 유헌청년회 주최로 충렬공 김방경 할아버님의 묘소참배를 위해 새벽부터 서둘러 부여를 출발 차내에서 전청년회장인 안렴사공파 재태(일명연태)씨의 공로를 치하하는 신임회장 태인씨로부터 공로패증정이 있어 한층더 종친간화합을 고조시키였다. 전회장 재태씨는 인간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내포제 시조계의 대부이시며 전국에서도 유명하신분이며

성회 익원공파 중회 부회장께서는 충렬공 김방경 행장을 유인물로 작성 나누어 주면서 행장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덕목에 대한 좋은 말씀으로 차내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안동에 도착 봉회종친의 영접을 받으며 영정각에 들러 예를 표하고 묘정에 올라 준비해간 제물을 차리고 성회씨 집전으로 고유제를 경건히 올리고 당진 용세종인께서 직접 생산한 백련술로 제주로 올리고 음복주로 참석하신 종인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종친간 친목이 한층더 돈독해지는 보람있는 하루가 되었다.



제424주기 임란공신 호국대제 봉행



2016년 5월 19일(목요일)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호국사에서 제424주기 임란공신 호국대제가 150여 참제원이 참석하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이 되었다.

대제의 초헌관은 송재훈, 아헌관은 김귀호, 종헌관은 송병우님이 헌작하였으며 보령시청 문화공

보실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성주면장을 비롯 많은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우리 안동김씨는 원주성에서 순직하신 제학공파 문숙공 제갑, 진주 대첩의 영웅이신 충무공 시민(時敏), 탄금대에서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순절 하신 익원공파 충민공 흠(欽) 세분이 배양되었다. 충민공 흠(欽)은 익원공 휘 士衡의 7代孫이시며 부사공 승석의 아드님이다. 이날 충민공 향사를 매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재식(전점공종회장), 재택부부, 인회부부, 정희 등의 참석하여 충민공의 순절하신 유업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목사공 신임회장 (김종회) 조상님묘소에 고유제 봉행



서기 2016년 4월 20일(수요일) 11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아리 금산에 위치한 목사공(휘. 적)묘역에서 신임회장으로 추대되신鍾會(충렬공 24代孫 익원공 20代孫 목사공 17代孫)님의 고유제향사가 종인 30여분이 참석한가운

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목사공 公의 諱는 적이요 자는 子高로 익원공의 증손이시며 동추공 휘. 宗淑의 삼남이다. 여주목사를 지내셨고贈 보조공신 영의정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으로 봉해졌다. 신임 鍾會 회장께서는 선조님 영영 앞에서 조상님 섬기는일과 종친간 화목을위해 열심히 일할것을다짐했다. 향사가 끝난후 당진 신평양조장 김용세 고문께서 보내신 백련 맑은술을 참석자들이 음복주로 마시며 종인간 화기에애한 가운데 담소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안동김씨익원공파 주부공(휘.沂)강릉,입향조 時享祀 봉행



서기 2016년 4월 26일 화요일(음 3월20일) 강원도 강릉시 모산동묘역에서 강릉지역 제관 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초헌관에 김인회(강릉지역 신임회장), 아헌관 김의희, 종헌관에 강릉문화원장, 김윤래 집례하에 질서정연하고

엄숙하게 제례행사가 봉행되었다. 주부공은 충렬공의 9代孫이며 익원공의 5代孫 영안군 휘. 壽卿의 3남이다.

경관이 수려하고 양지바른 언덕에서 후손들이 함께모여 선조님의 유업을 다시생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이날 당진 신평양조장 김용세(목사공)고문께서 직접빚은 백련맑은 술을 제상에올린후 참석한 제관들이 다함께 음복주를 나누며 崇祖 睦族의 이념을 더욱공고히 하였다.

勝於父

時學 洪 景 燮

한 가문(家門)이 흥하려면 할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훌륭해야 하고, 아버지보다는 자식이 더 잘 나고 똑똑해야 그 가문이 흥하고 더욱 번성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옛 어른들은 승어부(勝於父) 또는 견부호자(犬父虎子)라 하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식이 아버지보다 낫다면 아버지는 은근히 좋아서 만족의 미소를 지으며, 반대로 자식이 아버지보다 못하다면 앞날을 걱정하며 시무룩해져 의기소침(意氣銷沈)하기 마련이다.

자기 자신이 이룩하지 못한 욕망을 후대에 걸고 그 희망이 꼭 이루어 지기를 축원한다. 나는 고생을 했지만 자식에게는 그러한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고, 자기는 공부를 못했지만 자식만은 공부를 잘 시켜보겠다고 희생을 감수한다. 자식이 아버지보다 낫기를 바라는 마음은 과거에서 오늘에 그리고 또 미래에도 그대로 이어나갈 것이다. 먼저 자식이 아버지보다 낫기를 바랄 때에 아버지보다 난 자식을 아버지가 낳아 주어야 한다. 이른 바 그러한 소질을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하는데 말이다. 지능, 성격, 체격, 용모 등을 고루 갖춘 우수한 자식을 낳기 위하여 배우자를 잘 고르고 정성을 들이지만 어디 그렇게 100% 마음 흡족하게 되어 나오느냐는 그렇게 쉽지 않다. 여기에 인간의 탄식(歎息)이 있고, 신의 섭리(攝理)의 오묘함이 있다. 아무튼 자식은 아버지의 뼈에 사무친 기원(祈願)을 채워주기 위하여 몸과 마음이 건실하게 자라 공부 잘해서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

자식이 아버지의 뜻대로 자랄 때 아버지는 사는 보람과 당장 죽어도 후환(後患)이 없는 기쁨을 느끼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아버지는 왜 자식이 그럴까하고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고 인생의 회의마저 느낀다. 그런데 勝於父(승어부)한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데 있어 운명을 탓하기 전아 아버로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아버지의 일거일동(一舉一動), 일거수일투족(一舉手一投足)은 그대로 자식에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옛말에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 하였다. 옷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깨끗하지 못한 법이다. 어떻게 그 애비에 그 자식, 부전자전(父傳子傳)〈Like father, like son〉이다. 물론 예외일 때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근면성실(勤勉誠實)하며 정도(正道)를지켜 모범(模範)이 되고 자식에 대한 참된 사랑과 교훈(敎訓)을 줄 때 자식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아버지보다 낫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나 또는 경제적 부(富 - 財産)에 있어서 더 낫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할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인생을 올바르게 성실하게 살려는 마음씨와 태도, 나아가서는 인류와 국가사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봉사하고 공헌하려는가 하는 높고 깊은 가치관(價値觀)·인간관(人間觀)의 실현(實現)에 勝於父의 이상(理想)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제 아버지 흉내만 내고 진짜 아버지 노릇 한번 못해보는 아들이 아니라, 勝於父할 수 있는 아들로 거듭나야 한다.

익원공파 주부공 종회 화수회개최

서기 2016년 5월 22일 10:00-15:00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농협 본점 4층 대회의실에서 익원공파 주부공 종회 제13차(3년에1회) 화수회가 종인 1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난 1월17일 신임 회장으로 추대되신 김인회 회장의 내빈 소개에 이어 인사말을 통해 강릉지역 목사공 주부공(휘. 沂)의 후손들이 이렇게살기 좋은 지역에 뿌리내리게 해주신 선조님에 대하여 우리후손들은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선조님들섬기는일과 친족간 화합하는데 가일층 노력할것을 강조하였다.

이날 1 부행사에이여 중식을마치고 2부행사로 개인장기자랑 및 노래자랑 등을통한 푸짐한상품과 기념품등이 전달되었으며 종인들은 하

루종일 여흥시간을갖고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로 친목을 돈독히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치 못한분들의 축전과 많은 축하 화환과 성금이 담지하였다.



제수(祭需)에 관한 과일(조, 율, 시, 이) 순서의 상징적 의미와 교훈

제수진설시 과(果), 채(菜), 탕(湯), 적(炙)을 마련하고 과일은 조(棗), 율(栗), 시(柿), 이(梨) 즉... 대추, 밤, 감, 배 이런순서로 진설하며 우리선조들이 중요하게 치는 덕목중의 하나는 아무리 간소한 제사와 할지라도 삼과(三果)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대추, 밤, 감(감없는 계절에는 귤감) 이렇게 세가지는 반드시 써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없이 제사를 지냈다면 그날 조상님께서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신다하여 그만큼 이 세가지(대추, 밤, 감)는 절대 빼놓지 않으며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지금은 그리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핵가족 사회다보니 옛날에는 집안 어른들의 입을통하여 제사날 음식을 진설하여 놓고 철상 전후 과실 하나하나에 대한 상징적인 뜻과 의미에 대하여 대대로 전승되어 고래의 상식에 속하는 것이었으나 전통문화(관습문화)와의 단절속에서 비록 입으로만 구전된 그 전승도 끝이 소실되어 마치 아득한 먼 나라의 일인양 잊게 된것이 안타까워 어릴적에 부모님으로부터 1년에 8번(4대봉사시)복습하여 들은 기억을 담았습니다.

<상징적 의미와 교훈>

첫째 - 대추(棗)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첫째로 올리는가?

대추의 특징이라면 한나무에 열매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열린다는 것이 되겠지만 또 하나 빼놓을수 없는 것은 그것의 묘한 생리입니다.

그것은 꽃하나가 피면 반드시 열매하나를 맺고서야 꽃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옮겨 놓으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식을 낳고서 대를 이어 가야합니다. 그것도 많이 낳고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대추가 첫번째 자리에 놓이는 것이며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고 기원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집에 후손이 끊어지면 그 집안이 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막 혼례를 올린 신부가 시부모님께 폐백을 드릴때 시보무뎡께서 대추, 밤을 한음큼 새머느리의 치마폭에 던져 주는것도 같은 상징적 의미로 아들, 딸 구별 말고 대추열 듯 많이 낳아 자손이 번창케 하라는 것입니다.

*** 대추는 - 자식번창(人)

둘째 - 밤(栗)을 꼭 쓰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여느 식물의 경우 나무를 기러면 최초의 씨앗은 사라져버리지만 밤만은 땅속에 들어갔던 최초의 씨밤이 싹을터 그 나무가 아름드리가 되어도 절대 썩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랜세월이 흘렀건 간에 애초의 씨밤은 그 나무뿌리에 생밤 그대로 오래오래 그냥 달려있다고 합니다. 밤의 생리는 이렇게 묘합니다.

그래서 밤은 나의 조상의 영원한 연결을 상징하며 자손이 몇십, 몇백대를 헤아리며 내려가더라도 조상은 언제나 나와 영적으로 연결된체로 함께 한다는 것이며 또한 씨밤의 끈질긴 생명력은 우리인간의 생명력을 뜻합니다.

*** 밤 - 명(命) - 장수하라는 뜻에서 두번째로 진설(長壽)

*조상을 모시는 위폐 신주는 반드시 밤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셋째 - 감(柿)의 상징적 의미는?

감나무는 추운곳 한강이북에는 없다고 합니다.

추운곳에서 서식이 불가능하지만 우리민족이라면 평안도권, 함경도권 아무리 추운곳에 살더라도 반드시 제사때는 감(곶감)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감을 꼭 쓰는가? 감 역시 묘한 생리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르기를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고 하지만 감 심은데는 절대로 감나무지만 열매는 감이 열리지 않고 아무리 탐스러운 감나무의 감 씨를 심어도 그 감나무에 열리는 열매는 탐스러운 감이 아니라 곶용 열매가 열립니다. 즉 곶용나무가 됩니다. 여기에 2~5년후에 가지를 자른후 탐스러운 기존의 감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접을 붙여야만 다음해 부터는 탐스러운 감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감나무가 상징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즉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배우야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께서 인생사세(人間斯世)에 비학문(非學文)이면 무이위인(無以爲人)이니라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데에는 감나무처럼 생가지를 자르고 찌저서 접을 붙일 때 처럼 아픔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아픔을 겪으면서 선인의 예지(豫知)를 이어받을때 비로소 진정한 인격체(人格體)로 설수있다는 것입니다.

*** 감(柿)은 교육적 상징 -세번째로 진설(校)

넷째 - 배(梨)의 상징적 의미(施)

배 역시 꽃은 아름답고 향기롭고 열매는 제사상 위에 진설된 과일 중에서도 제일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나눔을 뜻하며

*즉 대추로 태어나서 밤으로 생명을 이어 감으로 교육을 받아 진정한 인격을 갖추었으며 배로서 남을 위하여 풍성하게 베풀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대추, 밤, 감, 배를 제사에 올리는 차례의 의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제수(祭需)하나를 차리는데도 자손에 대한 가르침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가르침을 망각한 채로 관습대로(뜻도 모르고)진설을 한다면 이는 마치 술방울을 올리는 것과 다를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조상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조상의 슬기를 천년만년 이어가게끔 이시간 이후 부터는 조상님의 기일에는 참사자 모두에게 복습을 시켜 주심사 하는 뜻에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추-(人) 밤-(命) 감-(校) 배-(施)

대구 중원 올림

